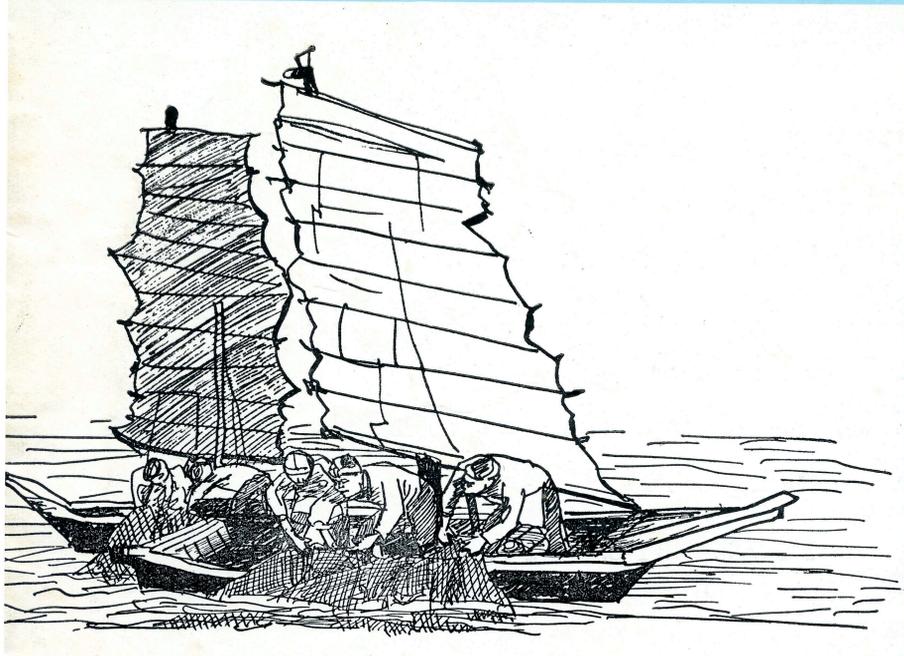


제 14 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좌수영 어방놀이
수영야류 사자 담보놀이



출 연 : 사단법인 수영고적민속보존회

일 시 : 73. 10. 26. ~ 28.

장 소 : 충청북도청주시공설운동장

부 산 직 할 시

인 사 말 씀



황금빛 물결 넘치는 들녘으로 보랏찬 유신조국의 광
영이 영글어가는 중추가절, 향기 높은 조상의 얼과 슬기
로운 민족의 예지가 숨쉬고 있는 민족의 잔치를 이곳
유서 깊은 청주에서 베풀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
각합니다.

격변하는 세계정세와 난맥의 문화사조 가운데도 국가
의 참된 가치관과 주체성을 되찾아 전진하려는 이때에
우리의 조상이 물려준 찬란한 문화유산을 계승 전달하고 오늘의 터전 위에 되
살려 보존함은 곧 민족중흥을 다짐하는 우리의 사명이요 긍지라 하겠읍
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수영지방 특유의 민족인 「좌수영 어방놀이」와 「수영야류」중
「사자담보놀이」를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근대수산업의 가속화된 발달로 하여 쇠미를 거듭하고 있는 토착어
민들의 민족인 「어방놀이」는 민족주체성의 확립이란 대명제 아래 추진되고 있
는 민족문화진흥계 보탬이 되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이 뜻깊은 대회를 해마다 주선해주신 문공부 당국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참가하신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1973. 10. 26.

부 산 직 할 시 장 박 영 수

출 연 임 원

대 표	정	대	윤	기	획	박	남	수
총 무	김	종	철	관	리	김	달	봉
재 무	김	귀	수	섭	외	박	재	숙

左水營 漁坊놀이 解説

1. 釜山 左水營의 地理歷史的 背景

부산에서 水營地方이라 함은 東南端 水營江沿岸 東西 15里의 一帶를 通稱해서 말하며, 左水營이라는 名稱은 李朝 宣朝25년 이래 現在의 水營洞에 慶尙左道 水軍節度使營이 있었기 때문인데 뒷날 廢營이 된 뒤로부터는 그냥 水營으로 略稱되어 오늘에 이른 것이다.

水營에는 넓은 들 가운데 水營江이 흘러 水利 灌溉가 좋아 土地가 肥沃할 뿐만 아니라 沿接한 바다는 大小의 灣曲과 섬으로써 風光明媚의 絶景을 이룩함과 아울러 풍부한 海産物을 所出하니 예로부터 水營은 軍事的으로나 經濟的으로 크게 重要的 위치에 處해 있었다.

高麗時代에는 塩田과 풍부한 海陸物産을 貪한 倭寇들의 침략때문에 이를 防止하기 위해 이곳에 鹽場官을 常駐케 하고 軍力을 配置하였으며, 李朝때에는 倭의 횡포가 더욱 심해져 宣朝25년에 울산 開雲浦所在의 慶尙左水營을 이곳에다 移營시켜 南端防備를 튼튼히 하고자 하였으나, 壬辰倭亂으로 廢營이 되는 悲運을 맛보게 되었다. 亂後에 營은 다시 복구되었으나 仁祖14년에 홍수로 因하여 江口가 埋沒되자 한때 營은 이웃 勘巒夷浦로 옮겨졌는데 孝宗3년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아와 城과 軍港을 築造하기 시작하여 顯宗11년에 完成 이후 甲午 更張때까지 300여년 동안 慶尙左道 水軍節度使營으로 되었던 것이다.

2. 左水營漁坊 및 漁坊놀이의 由來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水營地方은 江海의 自然條件때문에 魚資源이 풍부하여 釜山地域에서도 가장 먼저 어업의 발달을 본 곳이다.

어업발달의 始初는 左水營設置에 따른 水軍의 副食問題와 漁業振興을 위해 水營江口의 捕夷鎭에다 漁撈를 協業化시킨 데서 出發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漁坊인 것이다. 이 漁坊에서는 共同漁撈作業에 생기는 피로와 권태를 잊게 하고 일손을 맞추어 능률을 올리기 위해 설소리·맞는소리 등의 漁坊謠를 높이 互唱하였다 하니 가히 壯觀이었던 것이다. 더우기 城隍旗 大旗 또는 鳳旗를 휘날리며 남녀노소가 한데 어울려 칭칭가를 부르면서 춤까지 곁들이는 풍어때의 豐漁놀이는 놀이를 넘어 壯嚴하기까지 하였다.

지금은 沿岸魚資源의 枯渴과 기계문명의 發達 등 시대적인 변화로 이와같은 傳來의 모습과 노래도 점차 사라지고 잊혀짐은 固有民俗文化遺産이라는 점에서 哀惜한 일이 아니할수 없다.

이에 이번 民俗藝術競演大會를 계기로 해방후까지도 存續되었던 漁坊에 직접 宗事한 男女老人들을 主軸하여 수많은 형식의 漁坊놀이 가운데 대표격이라 하는 내왕소리(그물당길 때)·가례소리(잡은 고기 풀어내릴 때)·칭칭소리(豐漁를 축복하고 또 祈願할 때)만을 民俗競演場의 制限된 與件에 충실하게 再現을 試圖하여 漁村民俗文化의 一端이라도 保存하고자 한다.

내 왕 소 리

앞소리 **뒷소리** **앞소리** **뒷소리**
 에—헤이 앵헤야 에—헤이 앵헤야

앞소리	뒷소리	앞소리	뒷소리	앞소리	뒷소리	앞소리	뒷소리
운천강에	에헤야	가닥났다	에헤야	남걸비야	에헤야	남걸비야	에헤야
거제봉산에	〃	남걸비야	〃	배를모아	〃	배를모아	〃
상주강에	〃	배를모아	〃	탁주바다에	〃	뛰어나	〃
소주바람이	〃	불거던	〃	안주섬을	〃	찾아가자	〃
모았구나	〃	모았구나	〃	일등미색이	〃	모았구나	〃
한잔먹고	〃	두잔먹어	〃	취한김에	〃	본고도로돌아가자	〃
남한산성	〃	돌개는데	〃	임장군도	〃	돌을메고	〃
서장군도	〃	돌을메는데	〃	개똥같은	〃	우리인생	〃
일안하고	〃	무엇하나	〃	섬수갱변에	〃	타박을짓고	〃
부모형제	〃	이별하고	〃	금전바람에	〃	내여기왔다	〃
장개못간	〃	숫총각도	〃	돈을벌어	〃	장개간다	〃
성밖에	〃	노송십어	〃	노송남에	〃	학이앉아	〃
그학은	〃	젊어가고	〃	우리부모	〃	늙어간다	〃
전라도한산에	〃	집을지어	〃	올방돌방	〃	삿갓집을지어	〃
명주팬가	〃	모수팬가	〃	깍깍짜는	〃	저처자야	〃
어이그리	〃	곱게짜노	〃	우리서방	〃	도복배요	〃
영산강에	〃	가서거든	〃	사공사공	〃	땃사공아	〃
편지한장	〃	전해주소	〃	우리서방님에	〃	전해주소	〃
오동동	〃	긴긴밤에	〃	밤은어이	〃	쉬어가노	〃
녹양방초	〃	십에십에에	〃	해는어이	〃	더디가노	〃
서방품이	〃	그립구나	〃				

가 레 소 리

앞 소 리 **뒷 소 리**

오—호 가레야 오—호 가레야

이가레가 누가레고 〃 우리선주 가레로다 오—호 가레야

가례목에 반장사요	오—호 가례야	서발가례 대가례요	오—호 가례야
실렁실렁 실어보자	〃	메리치꽁치는 바다에 놀고	〃
살찐가무치는 연당에 놀고	〃	뒷집큰애기 내 품에 논다	〃
쇄천파천도 여기서나고	〃	은전금전도 여기서나고	〃
정승판서도 여기서난다	〃	먼데사람은 기경을하고	〃
잘에사람은 춤을추소	〃	만경창파에 금붕어가놀고	〃
우리그물에 다들었다	〃	넘날적에 나도나고	〃
내날적에 넘도나고	〃	다같이 낚거만요	〃
낮에는 밤을삼고	〃	밤으로는 낮을삼으니	〃
이고생이 웬말이나	〃	어떤사람 팔자좋아	〃
고대덩실 집을짓고	〃	사모에다 핑경달고	〃
동남풍의 바람따라	〃	풍경소리 요란하다	〃
우리인생도 고기잡아	〃	저렇게 살아보세	〃

칭 칭 소 리

앞 소리	뒷 소리	앞 소리	뒷 소리
겨기나 칭칭노네	겨기나칭칭노네		
열찌구나 절찌구나	〃	칭칭하늘에 잔별도많고	겨기나칭칭노네
이내가슴에 수심도많고	〃	시냇가에 잔돌도많고	〃
헌두더기 이도많고	〃	메리치꽁치는 바다에 놀고	〃
살찐가무치 연당에 놀고	〃	만경호수에 금붕어놀고	〃
뒷집큰애기 내 품에 논다	〃	불쌍한 어부들아	〃
낮으로는 밤을삼고	〃	밤으로는 낮을삼아	〃
이런고생을 왜하고있나	〃	어떤사람 팔자좋아	〃
고대덩실 집을지워	〃	양친부모 모시놓고	〃
사모에다 핑경달고	〃	동남풍의 바람따라	〃
풍경소리 요란하다	〃	만석곡식도 여기서나고	〃
정승판서도 여기서난다	〃	서발가례 대가례요	〃

앞 소리	뒷 소리
여기나 칭칭노네	여기나칭칭노네
실령실령 실어보소	〃
잘에사람 춤을주소	〃
우리어부 잘봐주소	〃
천년만년 복빌겠소	〃
늙어지면 못노나니	〃
요렇게 놀다가 죽어지면	〃
웃물소벽은 사람이들고	〃
대문밖이 봉만산천	〃
여기나 칭칭노네	〃

앞 소리	뒷 소리
먼데사람 기경하고	여기나칭칭노네
선주네요 선주네요	〃
선두에다 봉기꽃아	〃
노자노자 젊어노자	〃
젊은시절에 놀아보자	〃
만수장님 웃물이요	〃
봉만산천 먼줄 알았더니	〃
봉만산천을 편히가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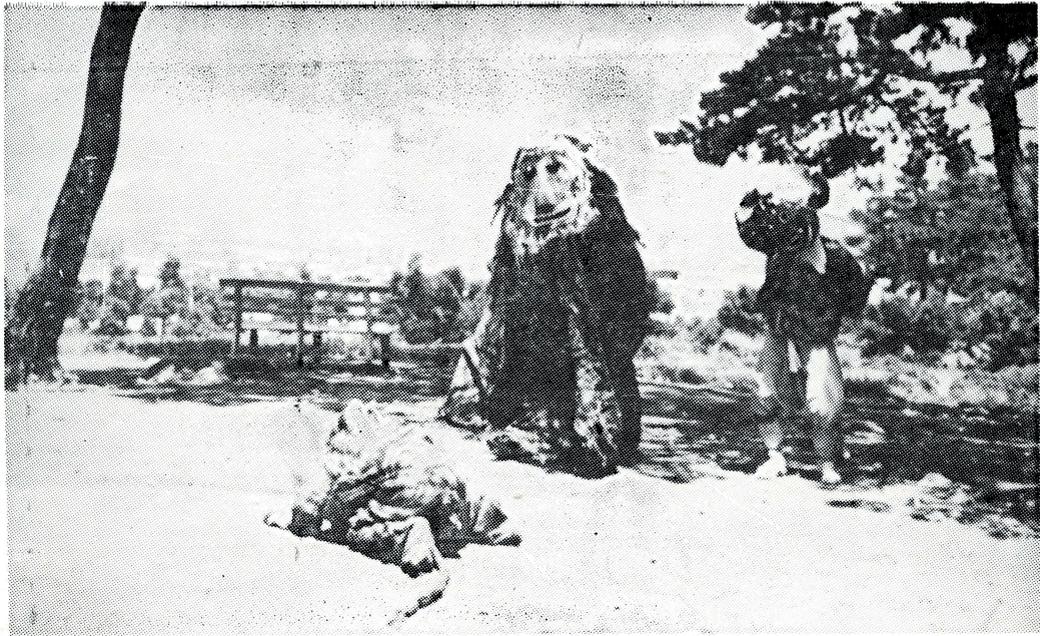
발굴·해설 수영고적민속보존회 정 대 윤

演 出 者

演出	鄭大允	考證	鄭時德	按舞	太命俊
音樂	尹守萬	裝置	金達鳳	衣裳	朴南水
道具	金貴秀	旗監	金石根		

出 演 者

鄭時德 80歲	趙在俊 68歲	太命俊 72歲	金貴秀 64歲
尹守萬 59〃	金達鳳 57〃	趙福俊 55〃	太未俊 74〃
朴南水 60〃	韓萬植 58〃	朴鳳路 68〃	鄭泰守 68〃
丁三高 65〃	田永鎭 64〃	金千壽 66〃	金奉泰 52〃
盧泳奎 55〃	朴德根 60〃	張在壽 57〃	金又根 46〃
孫基柱 48〃	文章守 47〃	李道錫 47〃	太德守 45〃
盧贊奎 46〃	丁潤晉 46〃	金基泰 45〃	
李也粉 68歲	尹文順 62歲	南惠子 63歲	王永順 63歲
金元今 64〃	金漢順 60〃	宋末南 59〃	梁且先 65〃
韓順烈 66〃	鄭貴念 65〃	金次今 61〃	金順玉 58〃
金又食 57〃			



無形文化財 第43號

水營野遊中 獅子담보놀이

水營野遊中 獅子담보 놀이는 野遊가 水營에 傳來된 以後 水營의 地勢 및 與件에 依해 案出된 놀이라고 한다. 水營은 옛부터 海陸 物産이 豊富하여 倭寇들이 자주 侵掠하므로 水營 鎮守山인 白山이 마치 獅子가 웅크리고 앉아 있는 形像이므로 鎮守山을 獅子로 倭寇를 담보로 假定하여 倭寇인 담보가 鎮守神인 獅子를 너무 괴롭히면 獅子가 담보를 잡아먹는다는 象徴함과 同時 百姓에게 倭寇에 대한 警覺心を 涵養鼓吹하였으며 辟邪進慶하는 宗教的인 意義를 갖는 놀이로서 嶺南特有의 굿거리 장단에 雄壯 活達한 춤으로 形成하는 놀이다

演 出 陣			樂 士			出 演 者		
演 出	鄭 大 允	굉 수	尹 守 萬	首獅子	金 容 泰			
助演出	太 命 俊	징	朴 南 水	中獅子	文 章 守			
考 證	鄭 時 德	장 고	趙 福 俊	中獅子	姜 次 登			
企 劃	金 貴 秀	장 고	孫 基 柱	尾獅子	趙 盛 坤			
衣 裳	朴 南 水	북	金 奉 泰	담 보	金 又 根			
音 樂	尹 守 萬	북	丁 三 高					
道 具	金 達 鳳							
旗 幟	金 石 根							

瑞原建設株式會社

<土木, 建築, 文化財工事>

代表理事 李 泰 鉉

本社 서울 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06

TEL (73) 1868 (73) 5785

高麗民俗工藝學院

高麗民藝社

부산시 중구 광복동 1가 31

TEL (23) 0011 • 2755



東暎建設株式會社

<土木, 建築, 文化財工事>

代表理事 裴 榮 錄

본 사 : 부산시 중구 대창동 2가32-1 (42) 8417

서울출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부동 46 (75) 1987